

# 에반, 선발보단 ‘셋업맨’

### 선발 테스트 5이닝 넘기니 흔들... 짧고 강렬한 역할에 최적

### 김병현 오늘 선발·서재응 1군 합류... 선발진 맞추기 재돌입

‘신입 호랑이’ 에반의 고민이 끝났다. 남은 시즌 에반은 선발이 아닌 불펜에서 뒷심싸움에 힘을 보태게 된다.

KIA 외국인 선수 에반의 선발 위유가 끝났다. 김기태 감독은 11일 경기에 앞서 “오늘부터 에반이 게임조에 들어간다”고 언급했다. 원래 로테이션대로라면 에반이 12일 선발이었다. 하지만 11일부터 게임조로 대기를 한다는 것은 불펜이 에반의 자리가 됐다는 의미다.

KIA는 후반기를 앞두고 부진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허머를 대신해 에반을 새로운 외국인 선수로 영입했다. 7월23일 삼성과의 경기에서 첫 선을 보인 에반은 다음날 진행된 롯데와의 경기에서는 백용환의 끝내기 스리런으로 행운의 승리를 거두며 한국 무대 첫 승을 신고했다. 그리고 치열한 불펜 싸움이 전개됐던 SK-한화와의 시리

즈에 연달아 나와 3연승 행진 뒤 홀드를 기록했다. 가볍게 150km를 넘기는 스피드와 파워, 위력적인 커터와 다양한 변화구를 앞세운 공격적인 피칭으로 뒷심싸움에 든든한 전력이 되어주었다.

에반의 활약 속에 6연승에 성공하면서 에반을 놓고 KIA의 고민이 시작됐다.

선발 후보였지만 ‘셋업맨’으로 활용도가 가장 높다는 계산이 나온 것이다. 흔히 쿠세라고 말하는 투구 습관 등을 고려해서도 선발보다는 짧고 강렬하게 이닝을 소화하는 게 더 낫다는 계산이었다.

시즌 막바지에 매일같이 접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한 변화를 주지 않고 에반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생각과 미국에서도 계투 요원으로 주로 활약했다는 점도 불펜 활용 쪽으로 기울게 했다. 지난 6일 한 차례 선발 기회가 주어지

는 했다. 테스트 결과는 6이닝 6피안타 7탈삼진 2실점. 관전은 성적이었지만 이날 고민은 남겼다.

5회가 끝난 뒤 에반의 모습이 달라졌다. 첫 타자부터 몸에 맞는 볼로 내보내는 등 연속안타와 사사구 두 개로 2실점을 하면서 경기는 2-2 원점으로 돌아갔다. 대량 실점 위기를 2점으로 막기는 했지만 이닝에 대한 부담감을 보이면서 보직 고민은 계속됐다.

그리고 에반이 선발로 자리를 옮긴 뒤 불펜진의 난조가 이어지면서 3연패를 기록한 팀 상황도 최종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불펜 요원으로 에반을 돌린 KIA는 다시 선발진 맞추기에 들어간다. 일단 스타트는 김병현이 끊는다. 지난 5일 넥센전에서 최고의 경기를 선보였던 김병현이 11일 경기가 우선으로 취소되면서 하루 밀어 12일 첫 승 도전에 나선다. 배태광 서재응은 11일 1군 선수단에 합류해 점검을 받았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홈런 ‘광광’ 백용환 “도핑테스트라도 해야 할까?”

덕아웃 T 특특

▲도핑 테스트라도 해봐야 하는 것 아닐까요? = 자신이 치고도 믿을 수 없다는 백용환. KIA 포수 백용환은 지난 9일 NC와의 원정경기에서 데뷔 후 첫 만루홈런을 기록했다. 양현종에게 승리를 선물해준 그랜드슬램은 백용환의 시즌 7번째 홈런이기도 하다. 지난 시즌 47경기에 나와 기록한 4개의 홈런이 자신의 최고 기록. 올 시즌에는 27경기에서 7개의 알짜배기 홈런을 터뜨렸다.

홈런 비결에 대해 묻자 백용환은 “도핑 테스트라도 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 나도 잘 모르겠다. 왜 이렇게 홈런이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마음이 달라져서 그런 것 같다”는 진짜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덧붙였다. 백

용환은 “이번에 올라오면 다시는 2군에 가지 말자는 간절함으로 야구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좌책감이 들고 싶어요 = 지난 주말 딱히 일이 없었다는 김종국 주루 코치. KIA는 주말 마산구장에서 진행된 NC와의 경기에서 1승1패를 주고받았다.

8일 경기에서는 상대 선발 해커의 특급 피칭에 묶이면서 9회 겨우 2점을 뽑아내면서 2-9패를 당했고, 9일에는 백용환의 만루포와 나지완의 솔로홈런 등으로 9-2 승리를 거뒀다. 하루는 빈타에 하루는 홈런으로 점수가 나면서 3루에서 어깨를 돌릴 틈이 별로 없었다는 이야기였다.

김종국 코치는 “홈에 들어가라고 열심히 어깨 돌리고, 작전 사인도 내고 그러다가 실수도 하면서 좌책감도 들고 싶은데 가만히 있다가 왔다”고 속سر워했다.

▲사실은 창피하더라고요 = 시즌이 중

반으로 향해 가면서 순위 싸움을 놓고 각 사령탑들의 긴장도도 높아지고 있다. KIA도 5위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는 만큼 김기태 감독의 마음도 복잡할 수밖에 없다.

김 감독은 취재진과의 자리에서 “벌써 시즌이 3분의 2가 지났다. 선수들 모두 우려하는 마음으로 집중하고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다가 스프링 캠프 이야기가 나왔다. KIA는 스프링 캠프 연습경기에서 9경기 103실점을 하면서 9연패를 기록했다. 김 감독은 “사실 장피하기는 하더라”고 웃은 뒤 “그때는 몸이 힘들었던 시기고 지금은 마음이 힘들다. 마음먹기에 달린 것 같다. 지난 2주 날도 덥고 선수들 고생 많았다. 가고자 하는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No.1 Kang”

美 CBS스포츠  
“현재 MLB 최고 신인”

미국 의 유력한 스포츠 전문 매체가 강정호(28·피츠버그 파이 리츠)를 현 시점까지 올해 미국 프로야구(MLB) 최고의 신인으로 선정했다.

CBS스포츠는 11일(이하 한국시간) 홈페이지에 ‘메이저리그 톱10 : 2015년 최고의 신인’이라는 2분52초 분량의 동영상 올렸다. 강정호의 얼굴이 캡처된 이 동영상 화면을 클릭해보면 CBS는 올해 들어 현재까지 최고의 활약을 펼치는 메이저리그 루키 ‘넘버 원’으로 강정호를 꼽았다.

CBS스포츠의 야구 칼럼니스트 데이비 페리는 이 동영상에서 “강정호는 3루수와 유격수로서 피츠버그에 매우 생산적인 결과를 가져왔다”며 “특히 조시 해리슨과 조디 머서의 공백을 훌륭하게 메웠다”고 밝혔다.

페리는 이어 “피츠버그가 강정호를 영입한다고 했을 때 ‘한국 타자가 어떻게 최고 레벨의 리그에서 견디겠느냐’는 의구심이 많았다”며 “하지만 그의 높은 레귤러는 지금까지 아주 높은 생산력을 과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강정호는 타율 0.293(300타수 88안타), 홈런 9개, 39타점 등을 기록 중이다. 그는 내셔널리그 7월의 신인에 선정된 바 있다.

CBS스포츠는 최고의 신인 2위, 3위로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맷 데이비, 시카고 컵스의 크리스 브라이언트를 꼽았다. /연합뉴스

# LPGA 개인 타이틀도 ‘한국 잔치’ 되겠네

### 박인비 올해의 선수·상금·최저타수 독식 가능 ‘신인왕’은 2승 김세영 선두... 김효주 맹추격 중

일주일 동안 휴식을 취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가 14일 (이하 한국 시간)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나흘 동안 열리는 컴비어 포틀랜드 클래식부터 하반기 일정을 연다.

앞으로 남은 대회는 컴비어 포틀랜드 클래식을 포함해 11개. 전반기 20개 대회 중 한국 선수 12개 대회를 휩쓴 가운데 개인 타이틀 역시 대부분 한국 선수들이 차지할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LPGA 투어에서 시상하는 개인 타이틀은 시즌 최우수선수(MVP) 격인 올해의 선수상, 평균타수 1위 선수에 주는 베어 트로피, 그리고 가장 뛰어난 성적을 올린 신인 선수 뮌인 신인왕 등이다. 별도로 시상하는 없지만 상금왕과 다승왕도 주요 타이틀로 꼽힌다. 세계랭킹 1위도 LPGA 투어가 주는 상은 아니지만 시즌 종료 시점 1위는 뜻깊은 ‘타이틀’이다. 11일 현재 이들 개인 타이틀 1위는 모조리 한국 선수가 꿰차고 있다.

개인 타이틀 석권에는 역시 ‘여제’ 박인비(27·KB금융)가 선봉이다. 상금, 다승에서 1위 박인비는 포인트로 순위를 매기는 올해의 선수와 평균 타수 1위에도 올라 있다.



박인비

상금왕 경쟁에서 박인비는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219만6982달러를 상금으로 받아 136만1194달러의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 고(한국 이름 고보경)를 크게 앞섰다. 올해의 선수 포인트 경쟁에서도 2위 리디아 고가 박인비를 따라잡아 역전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박인비는 올해의 선수 포인트 235점으로 리디아 고(134점)를 100점 이상 앞섰다. 4승을 올린 박인비를 2승씩 따낸 리디아 고, 김세영(22·미래에셋), 최나연(28·SK텔레콤)이 추격하는 다승 1위 경쟁에서도 박인비가 아주 유리하다.

그나마 박인비가 추월을 허용할 가능성이 있는 부문은 베어 트로피가 걸린 평균 타수. 박인비는 69.391타로 리디아 고(69.639타)에 근소하게 앞선 1위를 달리고 있다. 스테이스 루이스(미국)도 69.750타로 3위, 김효주(20·롯데)가 69.877타로 3위에 올라 있다.

평균 타수 1위와 올해의 선수, 그리고 상금왕 등 3개 주요 타이틀을 석권하는 ‘트리플 크라운’은 아직 한국 선수가 밟아보지 못한 경지이다. 2008년 이후 로레나 오초아(멕시코)가 3관왕 3연패를 달성한 이후 2011년 쟈니(대만), 지난해 루이스 등 두 명만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다.

LPGA 투어가 시상하는 주요 개인 타이틀 가운데 하나인 올해의 신인상(신인왕)은 한국 선수끼리 각축을 벌이고 있어 한국 선수 뮌이 될 공산이 크다. 시즌 2승을 올린 김세영이 신인상 포인트 976점을 받아 1위를 지키고 있으며 김효주가 947점으로 추격 중이다.

/연합뉴스